

전국체전

대회 막판 '빛고을 문화' 느껴 보세요

전국체전을 치르고 있는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청은 일찍이 이번 대회를 '문화제전'이라고 명명했다.

지자체의 축제에서 국제행사까지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그 이유다. 체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도심 곳곳에서 문화도시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표>

우선 수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 이벤트광장에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13일 오후 1시 막을 여는 '매직쇼'를 시작으로 '남구 문화마당', '최소년 페스티벌', 서울·인천·대전·진주의 공연팀들이 벌이는 '목소리가 있는 풍경'이 계속된다.

이와 함께 토크이러 만들기, 연민들기, 이색 스포츠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이 진행된다.

광주만의 축제 문화를 본격적으로 맛보고 싶다면 '광주 총장로축제'가 열리는 '시내'로 진출하는 것도 괜찮다.

총장로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전시행사가

총장로 축제·디자인 비엔날레 한창... 다양한 공연도

주말·휴일 문화행사 일정표. 날짜, 시간, 행사명, 장소가 표기되어 있다.

가 열리고, 13일 오후 3시에는 '전국 청소년가요제', 오후 7시30분에 '전국 비보이 공연 및 경연대회'가 첫 선을 보인다. 14일

에는 축제 폐막식 및 'MBC노래열전'이 이어진다.

13일 쌍암공원에서는 '민속문화패 뽀뽀

루 공연'(오후 1시)과 '전통무용, 락과 국악의 만남'(오후 6시)이, 광천터미널 앞 광장에서는 '대성여중 무용부 공연'(오후 3시), 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에서는 '추억의 대중가요 공연'(오후 7시)이 각각 열린다.

좀 더 격조 높은 공연을 보고 싶다면 광주주목회관에서 열리는 '광주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13일 오후 7시30분), '박상민 콘서트'(14일 오후 2시·6시)를 찾으면 된다.

11월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 각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로, '빛 LIGHT'를 주제로 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북구 운암동 중공원 내에 신축·개장한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광주미술현장'전, '하정웅 콜렉션 특선'전, '미술아 놀자'전 등이 진행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보건대 물리치료학과 한상완 교수와 학생 40명이 지난 8일부터 조선대체육관에서 전국체전 참가 선수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도 있네

- 88세 할아버지 '물 당반'
前시의회부회장 '마사지'
은퇴 교수 '독일어 통역'
70대 부부 '경기장 청소'

새내기이자 자원 봉사자 막둥이 김승현씨가 경기 진행을 맡고 있다.

김씨의 나이는 18세로 최고령인 신극주 할아버지와는 무려 70살 차이다.

김씨는 검도 공부를 위해 울산에서 광주로 온 '경기도 사나이'다. 조선대 체육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씨는 이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해 가까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통역 봉사자로 나서 은퇴 후의 인생을 즐기는 정병호 전(前)교수도 눈에 띈다. 전남대 약학대학 교수로 지난해 은퇴한 정씨는 독일동포팀 지원을 맡아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로 88회째를 맞은 전국체전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 전역의 경기장 안팎에는 빨간 모자와 빨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팔뚝 뭉친 3천 여명의 자원봉사자들로, 전국체전과 동갑인 88세의 최고령 자원봉사자부터 18세의 대학 새내기까지 연령의 격차가 없다.

또 광주시의회 부의장 출신의 지역 정가 원로도 있고, 피로에 지친 선수들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는 마사지 봉사자까지 그 면면도 다양하다.

배구 경기가 진행되는 광주여성 체육관에 가면 미소 가득한 얼굴로 물을 건네는 신극주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올해로 88세, 전국체전과 동갑인 신할아버지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중한 모습으로 선수들과 관중을 맞는다.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오고, 제일 늦게 자리를 떠나는 신할아버지는 물병이 든 무게로운 바구니를 들어올리며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깜짝' 놀라게도 한다.

서석고 검도 경기장에서는 풋풋한 대학

또 조선대체육관에선 보건대 물리치료학과 한상완(40)교수와 학생 40명이 피로에 지친 선수들에게 물리치료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체전에는 가족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선 경우도 많은데, 동신고등학교에서 환경미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의호(73)·조방자(여·69)부부는 다정한 모습으로 주위 봉사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제2대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정태성(63)씨도 자원봉사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정 전 부의장은 광주교대에서 경기내 자원봉사자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

안치환 광주시 민간협력과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성공적인 광주체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기는 무등골

주부 강순옥씨 육상 2관왕

화제의 인물

- 월드컵경기장 장내 중계팀

아나운서 고영선·이선자, 해설 윤여춘씨

“관중들 즐거운 표정 보면 보람 느끼죠”

日인론 한국수구에 관심

전국체전 수구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일본 기자가 염주수영장을 방문, 한국 국가대표의 눈길을 끌었다.

일본 최대의 '수구' 전문잡지인 일간 'WATERPOLO'의 아키오가미타니(34·나고야) 기자는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어서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 방문 이유를 밝혔다.

日동포선수단 불우이웃 성금



일본동포선수단(단장 김순영)이 광주 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체전에서 해외동포선수단중 가장 큰 규모인 219명이 참가한 일본선수단은 12일 한국복지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소년소녀가장 등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앞으로 꾸준한 지원을 약속했다.

결혼 8년차의 주부 강순옥(34·경북)씨가 지난 11일 육상 여자일반 1만m 종목에서 우승한 데 이어 12일 5천m까지 1위로 골인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강씨의 2관왕은 결혼한 후 선수생활을 이어온 여자 장거리 선수가 한 명도 없는 여자 육상계의 희소식, 전국적으로 50여 명도 되지 않은 여자 장거리 선수 중 아이를 낳고서도 선수생활을 하는 사람에 강씨가 최하다.

끝난 경기 안내판 치워주세요

체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정이 끝난 경기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내판이 철거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경기장 인근 도로에 안내판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일정이 끝난 것을 모르고 경기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OB맥주 야구장 자리잡기 경쟁

OB맥주 야구장에 관람석이 마련되지 않아 3루 덕아웃 건물 위쪽에 관중석 '명당'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광주대표 진흥고와 경남대표 마산고등학교의 경기에 2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지만 이곳에 마련된 의자는 10여 개에 불과, 대부분의 사람이 3시간 가량의 경기를 서서 관람했다.

/전국체전 특별취재단

관중 여러분 기뻐 주십시오. 남자 200m 고등부에서 대회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고생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육상 선수들이 펼치는 기록경신의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장내 아나운서들의 '맛깔스런' 입담도 들을 수 있다.

관중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들은 해설가 윤여춘(51·서울·가운데)씨와 장내 아나운서 고영선(여·35·대구·왼쪽), 이선자(여·30·광주·오른쪽)씨.

MBC 육상부전 전속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 위원은 1년에 10여 차례의 중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마라톤 선수들의 경기시간을 측정하는 '리더십' 회사의 대표 이사로 일하고 있다. 광양·순천에서 20여 년간 고등학교 육상감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육상 해설도 겸했던 윤 위원은 올림픽·아시아게임 등 굵직한 대회에서 100여 차례 이상 해설을 맡은 베테랑이다.

윤 위원은 "남도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자처해 무료로 해설을 맡았다"며 "한 번



들으면 궁금해서 또 듣게 되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해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여고 체육교사인 고 아나운서는 지난 2000년 대구 소년 체육대회에서 육상심판을 보던 중 시끄러운 대회장 정리를 위해 마이크를 잡았던 것이 대회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 장내 아나운서로 활동하게 된 이색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와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큰 대회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고 있다.

광주 진월초 교사이자 육상 감독을 맡고 있는 이 아나운서는 지난 6월 처음 마이크를 잡은 새내기 아나운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김택수감독의 대우증권 남녀탁구 승승장구

1990년대 한국 남자 탁구를 호령했던 왕년의 스타 김택수(37) 대우증권 토내에도 감독이 사람답게 대우 무대인 제88회 전국체전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전국 체전은 지난 5월 8년 만에 재창단한 대우증권 남녀 탁구단 지휘봉을 잡은 김택수 감독이 처음 참가하는 전국대회.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단식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남자탁구 에이스로 활약했던 김 감독은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도 '녹색테이블 반란'을 주도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총남 대표로 나온 대우증권은 12일 오후 광주일고 체육관에서 열린 농심삼다수(제주)와 남자 일반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3-2 역전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다.

현역 시절 라이벌이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남규(39)감독이 이끄는 팀과 첫 맞대결이라 관심을 모았는데 전력을 열세를 딛고 두 게임을 내준 뒤 세

게임을 내리 이겨 3-2 역전승을 이뤄냈다.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Suppor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with contact information.